

꺼지지 않는 불

김동일 | 이사·소방기술사

불 꽃의 형태는 쉬지 않고 바뀌어도 본질은 언제나 그대로인 「불」은 흔히 「영원한 기억의 상징」으로 실용화된다. 그러기에 위대한 사람의 묘, 이름 없이 산화한 무명용사의 비, 역사적으로 특별한 기념물 등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늘 자리하고 있다. ▲파리의 개선문에 있는 무명용사를 위한 영원의 햇불 ▲캐나다 국회의사당 앞의 꺼지지 않는 불 ▲러시아 모스크바의 키로프 공원에 있는 무명용사를 위한 불 ▲더 이상의 원폭 피해를 막고자 일본 동경 우에노(上野)공원에 설치한 평화의 불 ▲서울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에 조형된 세계 평화의 불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 타오르는 새천년 영원의 불 등등...

이 세상에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혀놓은 「묘지」두 곳이 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는 케네디 대통령의 묘와 중국 시안 근교에 있는 진시황릉이 그것이다.

미국 워싱턴의 포토맥 강 맞은편에 펼쳐진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미국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 미국을 위해 산화한 전몰장병 등 25만 여명의 영령이 잠들어 있는데, 세계적 관광지가 된 이 곳의 하이라이트는 아마 존 F. 케네디의 묘일 것이다. 케네디의 묘는 법무장관을 지낸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묘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으며, 그들 묘의 뒤쪽에는 끊임없이 타오르는 「영원의

불꽃(Eternal Flame)」이 있다.

해외 관광이 보편화하기 시작한 90년대 초, 이곳에서 벌어진 옷지 못할 일화도 있다. 외국에 처음 나온 한 한국 할머니가 워싱턴 관광단에 끼어 백악관을 정신없이 구경하다 그만 대열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마침 경찰이 보이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영어를 모르는 할머니는 다급한 나머지 일행의 다음 행선지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묘지임을 알려려고 “케네디 캐!”을 외치며 쓰러지는 흉내를 냈다.

경험 많은 경찰은 케네디란 말로 정황을 유추하여 순찰차로 케네디 센터와 케네디 묘역을 오가며 일행을 찾아주었다고 한다. 일행들이 어떻게 여길 찾았느냐고 묻자 할머니는 “나도 한 영어 한다”며 의기양양해 했었는데, 이후 별명도 “케네디 할머니”가 되었다고 전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보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보통 메탄(CH4)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여 불을 밝히는데, 카톨릭 학교 학생들이 케네디의 묘를 참배하러 왔다가 성수를 너무 많이 붓는 바람에 영원의 불이 한 차례 꺼진 적이 있으며, 파리의 개선문에 있는 영원의 햇불도 맥주를 애호하는 축구팬들이 몰려와 집단 방뇨하는 바람에 꺼진 적이 있다고 한다. 사람 사는 그 어디에도 말썽은 있기 마련인가보다.